

이개호·전진숙·정진욱 “광주·전남 통합 지금이 적기”

이 “7월 통합 시·도 출범” 사수 총력”
전 “용기 필요…갈등 없는 변화 없어”
정 “6·3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금이 적기”라며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다 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지난 1월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적기”라고 밝혔다.

통합 과정의 이견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정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그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반드시 오는 7월 통합 시·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시·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6·3 지방선거 이전에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기존의 분절된 행정 체계로

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갈등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의 익숙함에 취해, 다가올 미래에 눈감을 수는 없으며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이익과 비용, 권한 배분, 재정 구조, 주민자치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도 지난 4일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정책 결정 단위를 넓혀야만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AI, 미래모빌리티, 영농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첨단 제조, 농생명 산업을 메가시티 단 위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국책사업 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광주·전남의 통합단체장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며 “이를 미루다 광주와 전남에서 다시 각각 단체장이 뽑히면 협상한다·논의한다를 반복하다 결국 무산될 우려가 큰 만큼 쇄발도 단검에 빠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지역민의 뜻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전제이며 정부의 과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행정통합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 기자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환영나온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평리위안 여사. /베이징=연합뉴스

李대통령 “한중관계 전면복원 원년 삼자”

한중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한반도평화 대안 함께 모색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8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병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 지난 수천 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돌아봤다.

이어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인정 도의원, 진도군수 출마 선언

“변화와 혁신으로 한 단계 성장”

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민원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화와 혁신, 화합과 도약이 절실한 지금의 진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돌봄과 배려를 함께하는 보건복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구축 ▲미래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고도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사람에 투자하는 균형



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해 진도형 맞춤형 복지과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진도·광주 고속도로와 목포·진도 국가철도망, 신조도대교 건설 등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금산업진흥원 유치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도=박세권 기자

정달성 민주당 대표 특보 “복구청장 출마”

도시 재편·AI 행정 도입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광주 북구위원이 5일 복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복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달성 특보는 “복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

화, 기후재난, 기술혁신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며 “관행을 반복하는 행정으로는 위기를 넘을 수 없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정 특보는 마을활동가와 시민운동가로 복구에 정착해 10여년간 활동해 온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요구를 제도로 바꾸기 위해 지방의회에 진출



했고 주민 삶과 맞닿은 정책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 광주역·3사단 이전을 포함한 도시 구조 재편과 AI 기반 교통·복지·헬스케어 도입을 제시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영유아 단계별 무상복지, 우치공원K-POP 야외공연장 조성 등도 내놴다.

정 특보는 “참여와 혁신으로 복구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찬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